

# “바닥분수에 페스타까지”...장성 ‘무더위 극복’ 콘텐츠 풍성

### 홍길동파크·상무평화공원 분수 공연 등 1천원 맥주...썸머나잇피크닉 등 다채

장성군이 올해를 무더위를 이겨낼 ‘시원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6일 장성군에 따르면 가장 주목되는 곳은 온 가족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바닥분수’다. 홍길동테마파크 바닥분수는 인근 주민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올 만큼 유명하다.

8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휴일에 가동하며,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휴가철인 오는 28일부터 8월10일까지는 평일에도 운영할 예정이다.

역사 속 실존 인물인 홍길동의 생가와 산체제 협정 등을 둘러봐도 좋다. 축령산 편백숲에서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을 만끽하며 캠핑을 즐길 수도 있다.

삼계면 상무평화공원 바닥분수도 인기가 높다. 음악에 맞춰 물줄기가 연출되는 음악분수와 화려한 조명이 피서객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사한다.

7월에는 주말·공휴일에 가동하고, 8월 한 달 동안은 평일까지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 시간은 주말·휴일 오전 10시~오후 9시, 평일 오후 2~8시다.

상무평화공원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 7월에서 8월까지 눈과 귀를 사로잡을 공연이 줄을 잇는다.

먼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에 상무평화공원에 가면 ‘더위 타파 버스킹’을 즐길 수 있다. ‘장성 방문의 해’를 맞아 운영 중인 프로그램으로 마술쇼, 하모니카 연주, 요술쇼, 국악, 밴드 등 다양한 장르의 거리공연이 관객 맞이에 나선다.

‘2025 어울림음악회 썸머뮤직페스타’도 8월8



아이들이 장성군 삼계면 상무평화공원 음악분수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장성군 제공>

-9일 이틀간 상무평화공원에서 열린다. 첫날은 미스트롯3 우승자 김용빈, 미스트롯 2 출신 강혜연,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한 한태현

등이 신나는 트로트 무대를 선사한다. 다음 날에는 ‘남만고양이’, ‘오리 날다’ 등 대표 곡으로 유명한 ‘체리필터’, 월드컵 응원곡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실력과 밴드 ‘트랜스픽션’, ‘극동아시아타이거즈’, ‘롤링퀵츠’가 무더위를 날려버릴 락 음악을 들려준다. 시원한 물대포와 무료 물놀이장도 준비한다고 하니 놓치면 후회할 콘텐츠다.

‘장성의 중심’ 황룡강도 더위에 지친 사람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 오는 19일 오후 6시 황룡정원 야외무대에서 ‘장성 썸머나잇 피크닉’이 열린다. 폭발적인 가창력을 지닌 가수 소찬휘를 필두로 더위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소가 될 음악을 들려준다.

또한 선착순 1천명에게 맥주 1천잔을 1천원에 판매하는 행사도 연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방문에 불편이 없도록 주차공간 확보, 수경시설 관리 등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준비하겠다”며 “울여름도 장성에서 신나고 활기차게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 보성, ‘열선루’ 중건...생활형 역사 문화공간 조성

### 이순신 장군 장계 작성지...정신 계승

### 10월 ‘통합 축제’로 호국정신 재조명

보성군이 이순신 장군의 장계 작성지로 알려진 ‘열선루’를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생활형 공원 조성이 나섰다.

6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순신 장군의 장계 ‘금신전선상유십이(金臣戰船尙有十二)’가 작성된 역사적 장소 ‘열선루’의 중건을 완료하고, 오는 10월까지 신흥동산 종합개발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갑도>

‘열선루’는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앞두고 당시 국가의 절망적 상황 속에서 선조 임금에게 장계를 올린 장소로, 보성군민에게는 자긍심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이번 사업은 원형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역사를 접할 수 있도록 ▲호국전시관 ▲잔디광장 ▲전망 휴게공간 ▲산책로 등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구성된다.

특히 열선루 전망 개선과 산책로 주변 성과



조성을 통해 열선루의 정취를 복원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역사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또한 오는 10월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보성의 역사적 인연을 되새기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2025 열선루 통합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열선루는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장계를 올린 역사적 공간으로, 1610년 재건돼 지역의 정신적 상징으로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소실됐으나 2009년 초석이

발견되며 복원 필요성이 제기됐고, 보성군은 신흥동산에 중건 부지를 확정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새롭게 중건된 열선루는 조선 중기 대형 누각의 전형적인 형식을 따랐다. 진주 축서루, 울산 태화루와 유사한 양식으로 설계된 열선루는 정면 5칸, 측면 4칸의 평면에 총면적 2만9천794㎡ 규모다.

하부 기단은 23m 높이의 화강석 장주초석과 외벽대로 구성하고, 상부는 우물마루와 겹처마, 팔작지붕 등을 갖춘 전통 양식으로 정밀하게 복원했다.

건축물의 기둥 상부는 외부 1출목으로 구성했으며, 지붕에는 한식 기와를 얹고 용마루·내림마루·추녀마루에는 양식 바름을 시행해 고종과 풍격을 더했다.

김철원 보성군수는 “열선루는 위기 속에서도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던 충무공의 절절한 호국정신이 서린 상징”이라며 “열선루를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자랑스럽게 찾고, 즐기고, 기억하는 생활 속 역사 문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 순천시, 내수면 생태계 복원 수산종자 방류

### 10월까지 섬진강·동천 일원

### 붕어 등 10여 품종·20만 마리

순천시는 6일 “내수면 생태계 보전과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전남도와 총 10여 품종, 약 20만 마리의 건강한 어린 물고기를 섬진강과 동천 일대에 단계적으로 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올들어 6월 첫 방류 품종인 동남참계 1만7천 마리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섬진강·동천 일원 등에 미꾸라지, 동자개, 붕어, 메기, 동남참계, 소가리, 자라 등 10여 품종, 20만 마리를 방류한다.

방류 이후에도 품종별로 포획 금지 기간 설정, 어구 제한, 불법어업 단속 등 필요한 수산자

원 보호 조치 방안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2023~2024년 수산자원 회복이 시급한 하천과 강을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어린 물고기 10여 품종, 20만3천 마리를 방류하고 친환경 수산정책을 적극 추진, 내수면 수산자원 증식과 친환경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수산 종자를 지속적으로 방류해 내수면 생태계를 안정화하고, 수산자원 보존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정기 기자



## “낭만 선율” 여수, 캔들라이트 콘서트·드론쇼

### 11일 소호동동다리 대광장서

여수시는 6일 “오는 11일 오후 8시 소호동동다리 대광장에서 캔들라이트 콘서트와 드론라이트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스터>

앞서 여수시는 지난달 ‘2025 MyK FESTA in 여수’의 연계 행사로 이번 행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기상악화로 인한 안전상 문제로 취소한 바 있다.

공연은 현악 4중주팀 ‘리수스콰르텟’이 출연해 비발디 ‘사계-여름’, 쇼스타코비치 ‘왈츠’, 영화 노팅힐·미션 OST, 김광석의 대표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클래식 앙상블로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의 대미는 공중 점화 기능이 탑재된 1천대의 드론이 펼치는 대규모 ‘드론라이트쇼’가 장식한다.

여수시 관광 명소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담아 밤하늘을 수놓으며 화려한 비행을 선보인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좌석에 착석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장마로 인해 아쉽게 취소됐던 무대를 다시 준비한 만큼 여름밤의 정취를 한층 더 만끽할 특별한 공연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정철원(오른쪽) 담양군수가 최근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담양군 제공>

## 정철원 담양군수, 특별교부세 확보 광폭 행보

### 13개·100억여 규모 사업 지원 요청

### 시설 정비·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등

정철원 담양군수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에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6일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정 군수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를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들과 면담하고, 담양군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양부남 국회의원 등을 만나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면담에서 정 군수는 총 13개 사업, 약 1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건의사업은 ▲노후 기반시설 정비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지역안전 강화 ▲주민편의 시설 개선 등 주민 실생활과 직결된 내용으로 구성됐다.

정철원 군수는 “국가예산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수단인 만큼, 당면한 군정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당을 초월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반드시 성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방문을 지속하며, 지역 숙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담양=정승균 기자

## 화순팜, 복숭아 사전 예약판매 할인 이벤트

### 장어 등 품목 최대 45% 할인

화순군 6일 “오는 18일까지 농특산물 소평몰 화순팜에서 화순 명품 복숭아를 20% 할인된 가격에 사전 예약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화순군의 여름 대표 과일인 복숭아의 전국적 홍보와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정상 판매가보다 20% 할인된 금액으로 사전 예약결제를 받은 후, 복숭아가 본격 출

하되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 대표 보양식인 민물장어 일부 품목을 오는 14~25일 자체 할인을 포함 최대 45%까지 할인된 금액에 판매할 예정이다.

안진환 농촌활력과장은 “이번 사전예약판매를 통해 제철을 맞아 출하되는 화순의 복숭아와 품질 좋은 장어를 저렴한 가격에 맞출 수 있을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 고흥군 ‘소록경로당’ 개소

### 어르신 소통공간 마련

고흥군은 6일 “지난 3일 ‘소록경로당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개소식에는 공영민 고흥군수를 비롯해 고흥군의회 부의장과 의원, 기관단체장, 경로당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소록경로당은 노인인구가 약 90%인 달하는

소록도에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생활 및 친목 도모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오랜 바람을 반영해 개소했으며, 연면적 184㎡ 규모로 남녀 이용 공간이 분리돼 있다. 경로당은 ‘소록도 사랑의 집’ 게스트하우스 내에 마련됐다.

공영민 군수는 “그동안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여가생활을 즐길 공간이 부족했었”이라며 “소록경로당이 어르신들의 든든한 쉼터이자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